시연施連칼럼

추석 무렵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시간 보따리를 풀어두고 고향(故鄕) 길을 가장 걷고 싶은 시기가 추석(秋夕) 무렵이다. 어머니와 마실 나갔던 뒷산은 새소리 곱고 녹음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세상살이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참척의 고통이 닥치는 등 늘 평화롭지 못하다.

고향 집 가족과 이웃집이 줄어들어 차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부모, 형제, 자식의 그림자가 그립기만 한 세월이다. 큰 집에 가족들이 모이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세월(歲月) 탓인가.

추석 선물은 휴가지에서도 모바일로 구매하면 택배회사가 가져다준다. 차례상에 올린 제수 꺼리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송편 빚는 집도 많지 않고 따로 명절빔을 사 입히는 집 역시 드물다.

원룸, 아파트로 대체된 거리는 도타운 가을 햇살과는 달리 파리함에 묻힌다.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려니 생각해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여서 추석 연휴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이들이 더 늘어났다. 올 추석 연휴는 잘만 활용하면 거의 일주일은 놀 수 있어서인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서 인지 "조상님 여행 잘 다 오겠습니다."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것같다.

두어 세대 전의 일이지만 어머니는 볕 좋은 날을 잡아 집안의 문짝은 죄다 떼어내 물로 씻고 햇볕에 바짝 말린 뒤 새 문종이를 바르셨다. 떼어낸 문짝들이 담벼락에 기대두고 해바라기를 하면 추석이 오는구나 여겼다.

어머니는 지난 가을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고운 단풍잎 두 장을 딸아이 방문짝 고리 옆에 반듯하게 창호지로 덧발라 주시는 멋스러움도 늘 간직하셨는데... 세월이 흘러 그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문종이를 바르는 문짝 대신 유리창이 달린 시멘트집 들 뿐이다.

문짝을 떼어내 일 년 내내 쌓인 먼지를 물로 씻고 창호에 찹쌀풀을 입히던 일, 풀비가 유리 닦기로 바뀌었을 뿐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그대로이다.

바깥세상에서만 돌다보니 설탕 맛, 조미료 맛에 길던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맛이 추석 무렵이면 유독 그립다. 가마솥 뚜껑을 열고 잡곡밥에 얹어 속살까지 구수하고 얼큰하게 만들어진 장떡하며 가지나 애동 고추에 밀가루를 살짝 입힌 밑반찬을 꺼내는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가야 이것들도 다 제 간을 가졌다. 양념을 너무 치면 제 간을 잃는다."라고.

제 간을 잃는 처사가 세상살이에 어디 한두 가지만 될까.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라도 자신의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고 다듬지 않은 말이라도 생활의 지혜고 길잡이다.

백석은 고야(古夜)에서 "내일 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째듯하니 불이 밝고 솥뚜껑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 새 곰국이 무르끓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마을의 소문을 펴며/ 조개송편에 달 송편에/ 죈두기 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설탕 든 콩가루 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백석은 정겹고 푸근했던 어릴 적 명절맞이를 다채로운 시각· 후각으로 넉넉하게 살려냈다.

"반짝반짝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 놈을 데불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쓰윽 훑어보았다./ 저만큼 고추밭에서/ 아낙 셋이 엉덩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자연의 풍요로운 생명력은 한가위에 한껏 치오른다" 김남주(1946~1994, 전남 해남)의 시(詩) '추석 무렵'이다.

시인(詩人)이 본 추석 무렵은 그 관능적(官能的) 생산력(生産力)을 귀향(歸鄕)길 고추밭에서 마주친 여인네들의 엉덩이로 표현, 익살맞게 노래했다. "고향이 아무리 객지처럼 썰렁하다 해도 자식 보고픈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막내딸이 추석이라고 송이를 보내왔다./ 바빠서 못 온다고/ 아 내겐 송이 냄새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그리운 것을" (조병화의 시 송이)

고향 명절의 추억은 어느 사이 흑백 사진처럼 빛바래 가고 고향이 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채우는 사회로 달려가는 속도(速度)가 너무 빠른 것 같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8〉

긍재집(兢齋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긍재집〉은 문과 급제에 사헌부장령 등을 지낸 권상룡(權相龍,1706~1765) 공의 시문집(詩文集)으로 1권 1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28세(世)로 부정공파(副正公派)이다. 자(字)는 용여(龍如), 호(號)가 긍재(兢齋)이다. 옛 지명 상주(尙州) 산양현 근암리(近嵒里), 즉 현재의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書中里)에서 태어났다. 공의 부친은 수직(壽職)통정대부(通政大夫) 권한(權澣, 1677~1749)이며, 모친은 풍양조씨(豊壤趙氏)로 통덕랑(通德郎) 조연(趙淵)의 따님이다.

공은 백종형(伯從兄)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을 따라 학문을 익혔다. 1735년에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여 생원이 되고, 1738년 식년시(式年試)에 문과 급제하여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 장녕전별검(長寧殿別檢)을 지내고 호서경차관(湖西敬差官)으로 나갔다가 예조좌랑(禮曹佐郎)을 거쳐, 1746년(영조 22) 봄에 함경도도사(咸鏡道都事)에 임명되었다.

이해 8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1749년(영조 25)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상을 마친 후 호조정랑·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자인현감(慈仁縣監)·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이르렀다.

1760년(영조 36) 사간원정언에 임명되고, 1762년(영조 38)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다. 이해 5월에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임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집 뒤 북망봉(北望峯) 아래에 작은 정자를 지어서 이름을 '청류정(靑流亭)'이라 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후진을 교육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향년 60세이다. 묘소는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兄川里) 서쪽기슭 축좌(丑坐) 합폄이다. 공의 행장은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1874~1961)가 지었다. 묘갈명은 1833년 10월 상순에 강고(江皐) 류심춘(柳尋春,1762~1834)이 지었다.

공의 시문(詩文)은 1935년에 공의 6대손 권도묵(權道默,1883~1946)이 정리하고, 이를 아들 권응조(權應祚, 1911~1942)에게 필사(筆寫)시켜 2책으로 만들었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5대손 권병섭(權秉燮,1854~1939)이 1935년 10월에 문집 발문을 짓고, 진성인(眞城人) 이상호(李祥鎬,1883~1963)가 1937년 동짓달에 문집 서문을 지었다. 그 뒤 1983년에 공의 8대손 권기학(權奇鶴)·권기욱(權奇旭) 등이 친척들과 의논하여 비용을 분담하고 책이름을 〈긍재유고(兢齋遺稿)〉로 하여 10줄 22자(字) 목판 형식의 129판(版) 석인본(石印本) 1권1책으로 만들어 1984년에 간행하였다. 이때 8대손 권기욱(權奇旭)이 1984년 1월 하순에 발문을 지었다.

문집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詩)가 98제(題) 102수로 임지(任地)와 관련되거나 타인의 시에 차운한 것이 많다. 사(辭)는 한 수로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차운한 것이다.

서(書)는 46편으로 이만부(李萬敷), 오상원(吳尙遠), 이맹휴(李孟休), 권정택(權正宅), 정간(鄭幹) 등 여러 인물과 주고받은 것이며, 서(序)는 2편으로 반취(伴翠) 이공(李公)의 시집 서문과 동계안(洞契案) 서문이다. 기(記)는 2편으로 건물 중수기(重修記)와 금강산 유람에 대한 대략적인 기문이다.

발(跋)은 한 편으로 담암(潭巖) 김(金)선생 유허비 뒤에 적은 것이다. 상량문은 한 편으로 용곡리사(龍谷里社) 상량 때 지은 것이다. 만사(輓詞)는 34수로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 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들이다. 제문(祭文)은 4편으로 참봉 류성증(柳聖曾), 종형 졸수재(拙修齋), 사위, 및 장모를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묘갈명(墓碣銘)은 3편으로 서재(西齋) 채공(蔡公), 점이와(點离窩) 안공(安公), 월오당(月梧堂) 안공(安公)을 위한 것이다. 가장(家狀)은 2편으로 한 편은 백종형(伯從兄)인 청대 권상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 아들 권경(權檠,1741~1818)이 지은 공의 가장(家狀)이다. 끝으로 부록(附錄)에는 후인이 지은 만사(輓詞,12), 제문(祭文,2), 행장(行狀,1), 묘갈명(墓碣銘,1), 발(跋,2)이 실려 있다.

다음 시는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1664~1732)의 〈심체(心體)〉라는 시에 차운한 것이다.

人心易放難收斂(인심이방난수렴)
인심은 달아나기 쉽고 거둬들이기 어려우니
一曝何能勝十寒(일폭하능승십한)
하루 햇볕이 어찌 열흘 추위를 이기겠는가
存養妙工如何做(존양묘공여하주)
마음 보존하고 기르는 공부 어떻게 하냐면
須將仁禮兩言看(수장인례양언간)
반드시 인과 예 두 글자를 자세히 봐야하리

이 시에서 공이 일찍부터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밖으로 달아난 마음을 거두어들여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힘써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또 다음은 강서장(姜瑞長)이라는 사람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冒炎長夏度長程(모염장하도장정)
긴 여름 더위 무릅쓰고 긴 여정 나섰는데
十步回頭鑑水亭(십보회두감수정)
열 걸음에 머리 돌려 물가 정자 생각했네
氣味相符非面諾(기미상부비면락)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생각취미 서로 같고
艱辛與共豈凡情(간신여공기범정)
천신만고 함께 했으니 어찌 보통 사이인가
騷壇幾日蓬能直(소단기일봉능직)
문단에서 며칠 만에 쑥이 곧아질 수 있나
歸夢今宵月正明(귀몽금소월정명)
오늘 밤 돌아갈 꿈에 달이 정말 환하구나
莫以空談銷永日(막이공담소영일)
긴긴 날을 허튼 얘기하며 보내면 안 되지
男兒事業貴終成(남아사업귀종성)
사나이는 사업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네

이 시에서 공은 무더운 여름에 멀리 벗을 찾아가 만나고 돌아오며 서로 긴긴 날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학업을 성취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또 다음은 규암(閨巖)이라는 경치 좋은 곳에서 여러 벗과 함께 놀며 지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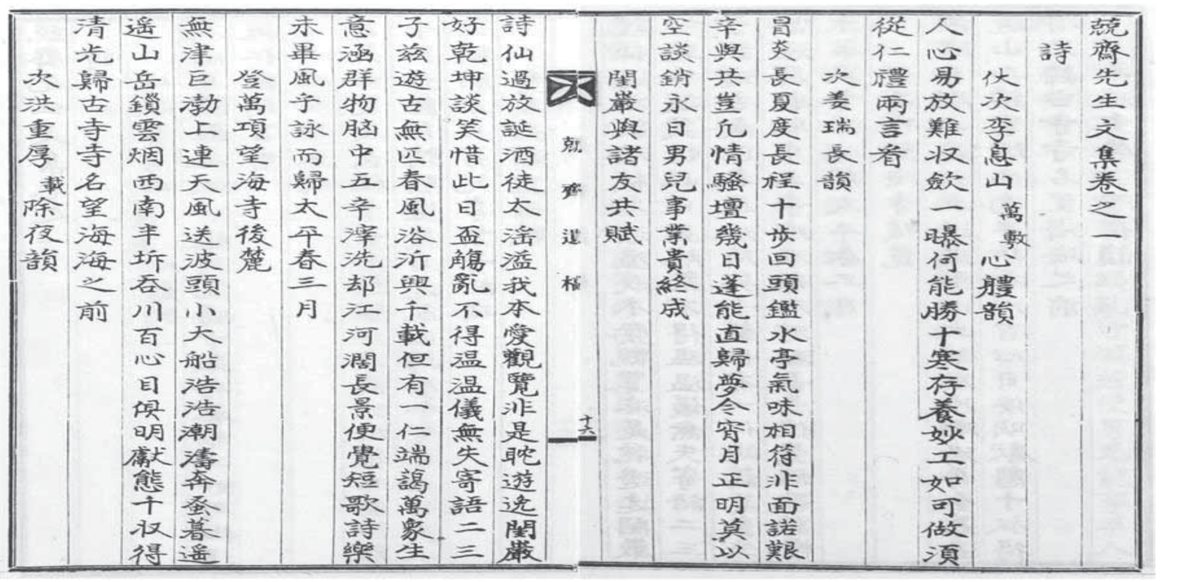
詩仙過放誕(시선과방탄) 시인들은 지나치게 허황하였고
酒徒太淫溢(주도태음일) 술꾼들은 너무 크게 방종하였네
我本愛觀覽(아본애관람) 나는 관람하기를 좋아하면서
非是耽遊逸(비시탐유일) 즐겨 제멋대로 놀기도 하였네
閨巖好乾坤(규암호건곤) 규암은 참 아름다운 경치이니
談笑惜此日(담소석차일) 담소하며 오늘을 아까워했네
盃觴亂不得(배상난부득) 술을 마셔도 혼란하지 않았고
溫溫儀無失(온온의무실) 온순하여 실수하지도 않았네
寄語二三子(기어이삼자)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말하니
玆遊古無匹(자유고무필) 이런 놀이는 예전에도 없었네
春風浴沂興(춘풍욕기흥) 기수 목욕 봄바람 쐬는 흥은
千載但有一(천재단유일) 천 년에 오직 한번 있었다네
仁端藹萬象(인단애만상) 어짊의 단서가 만물에 애연하니
生意涵群物(생의함군물) 살려는 마음 뭇사물에 가득하네
胸中五辛滓(흉중오신재) 가슴속 다섯 가지 매운 찌끼를
洗却江河濶(세각강하활) 넓은 강에 깨끗이 씻어야 하리
長景便覺短(장경변각단) 이에 기다란 강이 곧 짧음 알아
歌詩樂未畢(가시악미필) 노래와 시 즐거움 끝나지 않네
風乎詠而歸(풍호영이귀) 바람 쐬고 읊으면서 돌아오니
太平春三月(태평춘삼월) 태평 성대 삼월의 봄날이로다

이 시에서는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이뤄지거든 관동(冠童) 6,7명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쏘이고 읊으며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러한 기상이 공에게도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또 다음은 공이 전라북도 김제(金堤) 만경(萬頃)의 망해사(望海寺) 뒷산 기슭에 올라 앞에 펼쳐진 경치를 둘러보고 지은 것이다.

無津巨渤上連天(무진거발상련천)
나루터 없는 바다 위로 하늘이 연이었는데
風送波頭小大船(풍송파두소대선)
바람에 크고 작은 배들이 물결 위로 다니네
浩浩潮濤奔蚤暮(호호조도분조모)
넓은 바다 조수 파도는 아침저녁 분주하고
遙遙山岳鎖雲烟(요요산악쇄운연)
멀리 산들 자욱한 구름과 안개에 잠겨있네
西南半坼呑川百(서남반탁탄천백)
서남쪽 반쯤은 터져있어 여러 냇물 삼키고
心目俱明獻態千(심목구명헌태천)
드러내는 온갖 자태에 마음과 눈 밝아졌네
收得淸光歸古寺(수득청광귀고사)
맑은 모습 거두어들여 옛 사찰로 돌아오니
寺名望海海之前(사명망해해지전)
절 이름은 망해사요 앞쪽이 바로 바다라네

이 시는 호서경차관(湖西敬差官)으로 나갔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망해사 앞바다와 주위 경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는듯하다. 망해사는 김제시 진봉면(進鳳面) 심포리(深浦里)에 있으며 바로 앞이 심포항(深浦港)이다.



독립투사 권희權憘 선생 기념비 제막식 거행

독립투사 권희(權憘, 추밀공파, 33世, 1900-1955)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이 2023. 8. 15. 11:30. 시흥시 능곡동 865번지 제2그린공원에서 안동권씨 추밀공파 오헌공종중 권용학 회장을 비롯하여 임병택 시흥시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권용학 오헌공종중 회장은 기념사에서 "독립투사 권희權憘 선조를 널리 알리고자 기념비 건립을 시흥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결국 2017년 시흥시의 독립투사 선양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오늘 권희權憘 선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제막식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感慨無量하다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이 길이길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공은 1900년 6월 18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長峴里, 현 시흥시 장현동)에서 권준영(權俊榮, 1873~1928)의 아들로 태어났다. 20살 되던 1919년 3월 6일 일제의 학정에 항거하기 위하여 분연궐기(憤然蹶起)하여 독자적으로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대한독립만세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고자 전 면민(面民)에게 사발통문(沙鉢通文)을 회람(回覽)시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래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독립하고자 하니, 각 주민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4월 7일 군자면 구 시장에 구한국 국기 한 개씩을 휴대하고 와서 모일 것과 많은 사람을 결속시켜 시위운동을 일으키자"라는 내용의 문서 1통을 작성하였다.

공은 이 비밀통고문을 장곡리(長谷里), 월곶리(月串里), 중률리(中栗里), 군자리(君子里), 거모리(去毛里) 등의 각 이장집에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이 돌려 볼 수 있도록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시위운동을 추진하던 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고등계 형사들의 가혹한 고문拷問과 형벌刑罰을 당하며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투사 권희 선조에게 1986년 대통령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635호)을 추서하였다.

권길행 오헌공종중 사무국장

권용학 회장이 기념비 제막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독립투사 권희 기념비

기념비 제막식 행사에 국회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시 광복회장, 도의원, 시의원 등 200여명의 귀빈들이 참석하였다.